

藝 · 體能系 入試의 함정

李 相 日
(成均館大 獨語獨文學科)

지난 해의 예·체능계 入試不正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어제 오늘, 대입 후기 시험문 제지 도난사건과 시험연기 및 학사조정이라는 교육계로 봐서는 너무나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다. 대 학입시에 관한 한 매우 엄청난 일들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양’ 일어나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 다스니 한심하다스니 하는 말 이외에 할 말을 잃게 된다. 이런 감정은 차츰 분노로 바뀌지 않을 수 없다. 어찌하여 國家大計의 대학인재들을 뽑는 마당에 선발과정이 그렇게 허술할 수가 있는가. 국가관리 체제인 학력고사 과정에 이런 틈이 생기면 모든 국가시험 자체에 대한 不信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각 대학별 시험이나 회사 입사시험, 공공기관 채용시험, 각종 자격시험 등 사람을 가리고 뽑는 선발과정에 불신이 쌓이게 되면 그것은 公信力에 대한 불신이 되고 마침내 國家存亡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된다.

나는 전국이 초조와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대학입시의 와중에 들어 설 때마다 무슨 사건이 터질 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에 휩싸이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그것은 사건이 터지기를 바라는 고약한 심 보에서라기보다 국가관리라는 대규모 체제에서 비롯되는 허점이 드러내는 맹점 때문이다. 국가관 리 체제라는 것은 일종의 ‘니만쯔란트’이다. 무인지대—모든 사람이 책임을 다른 곳으로 떠넘기기 때문에 책임질 인격체가 없는 빈 공간이 생기게 마련인 官僚制度의 맹점을 국가관리 체제는 그 속 성으로서 지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관리 체제의 大學入試는 어딘가 허점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나라 大入試上 그래도 이번을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큰 불상사가 없었다는 것은 다행 이며 요행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 大凡에 작은 흠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지만, 그 작은 실수가 일파만파로 번져가는 이번 사태는 “큰 살림보다 작은 살림이 아름답다”는 지 혜를 가르쳐 주었다고 할 것이다.

예·체능 입시는 담당교수의 입김이 직접 작용한다는 점으로 보아 국가관리 체제나 대학당국의 교 육관료 체제에서 벗어난 ‘작은 살림’에 속한다. 좋게 말해서 거기에는 가르칠 스승과 가르침을 받 을 제자 사이의 인격적 교류와 접촉이 있고, 책임과 신뢰라는 소규모 살림의 법칙이 적용된다. 큰 살림의 무미건조한 기계적 운용에 비하여 작은 살림의 감정과 정서가 예·체능 입시의 실기채점에 서는 개재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만큼 예·체능계 입시의 실기채점에는 人間美가 작용한다.

물론 요즈음에는 예술분야와 체육만을 예·체능계로 분류할 수 없다. 예·체능계라는 분류법으로 음악·미술·무용·체육 등을 괄호 속에 집어넣고 나면 디자인이라거나 패션·TV·영화·만화 심지어 가요 등 이른바 '대중예술'은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고 힐난이 인다. 대학교육에서 인문·사회계를 이·공계에 비해 '軟派' 학문으로 생각하던 고정관념이 이렇게 하여 대중예술 때문에 인문·사회계가 '硬派' 학문이 되고, 그야말로 가요·패션·음악·미술·무용 등이 연파계열로 밀려난다. 물론 가요부문이나 패션 등이 아직 정식 학문 분야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입시에서 이른바 '뒷거래' 운운의 덜미잡힐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연파학문 계열은 인간적 거래의 標的이 되기 십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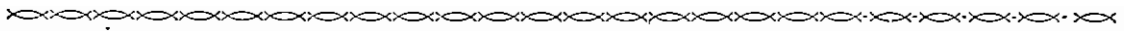
말하자면 연파는 감정이나 정서에 관련되어 있어서 휴머니티가 발동된다 해도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끊어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연파학문 계열의 '뒷'은 스승과 제자 사이가 너무 人間的이라는 것이다. 그 인간적 유대관계 때문에 예·체능분야의 극위선양도 하루 아침에 가능한 것이고, 그만큼 입시부정 같은 체면손상으로 하루 아침에 먹물을 뒤집어 쓰기도 쉽다.

모든 것은 대학입시의 過熱에 있다. 입학생 선발이 오늘날과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면, 굳이 뜯고 뒤겨래할 것도 없이 예·체능계는 자기 제능껏 한 우물만 파면 되는 것이고 굳이 경쟁을 금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대학입시라는 관문은 하드한 계열에서나 강요될 필요가 있고, 예·체능계는 오히려 스승이 뽑은 제자의 순열 같은 徒弟式으로 제도화되는 것이 옳다.

학원이나 개인연구소 같은 곳에서 개인 기량의 향상을 도모하는 경우 스승의 權威는 절대적이고, 따라서 제자는 철저히 스승 한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 안에서 혼란된다. 그런 면에서 나는 우리나라 대학의 예·체능계 분야 설정이 애초에 잘못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체능계 학과와 같은 연파는 육체적·기량적 하드 트레이닝은 가능하겠지만, 지적·이성적 탐구는 다른 차원에서 성취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달리기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이성과 지성의 탐구 정신이 아니라 기량의 축적이다. 좋은 그림을 그릴 화가, 좋은 춤을 출 무용가, 좋은 노래를 불러 줄 음악가, 그리고 뛰어난 농구선수와 마라토너는 대학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닌 천부의 才能을 갖고 닭움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첫째는 그들이 지닌 천부의 제능이 문제이고, 둘째가 그것을 갈고 닭을 환경, 그것도 敎育的 環境이 중요한 것이다.

그 교육적 환경이 반드시 大學이어야 한다는 필연성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접일 수도 있고 학원이나 개인연구소, 그리고 그 곳의 선생일 수도 있다. 개인이 사사하는 선생은 반드시 대학교수·박사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공간도 반드시 교실일 필요없이 산과 바다일 수도 있다. 흔히 예·체능계의 혼련도장은 時空을 뛰어넘고, 그것은 개인적 체험의 누적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예·체능계의 수련은 천부의 재능과 개인적 정진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체험을 동반한 자기각성의,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 깨달음의 경지까지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예·체능계의 高手는 종교적 도사와 비견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체능계의 자기발전은 종교적 求道精神과 마찬가지로 아닌가 싶다. 종교에 대한 知識은 종교학과나 기독교·불교·유학과 같은 데서 얻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과 신념은 초월적인 것이며 그것은 개인적 구도정신에서 갈고 닭여진다. 따라서 자기구원의 신앙이 종교학과에서 얻어질 수 없듯이, 예·체능학과의 지식 축적은 예·체능 자질의 수준 향상이나 기량 연마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다. 예·체능학과 지망생들은 그 분야의 지식이나 얻고 그 분야의 학



위나 얻을 수 있을 뿐, 자질 향상이나 기량 연다가 대학 강단과 별 상관없다면 반드시 기를 쓰고 대학으로 진학할 것까지도 없는 것이다.

예·체능계의 대학 진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순전히 간판따기의 자격획득용 관문통과 의식이다. 주관적인 감정의 교양이나 경서의 교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출신대학 대의 보증증이 되어버린 마당에, 그 알량한 지식의 授受는 결국 세속적인 사회생활용의 誇示 이상이 되지 못하고 노래도 춤도 그럴듯한 재롱 이상이 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대학을 나오고 나면 그 알량한 예·체능계 지식은 사장되어 버리고 예술을 위한, 체육을 위한 고매한 정신은 간 곳이 없어진다.

예·체능계 학과가 진리의 탐구도장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전시장이거나 겨루기 도장인 한, 예술이나 체육이 진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방도는 그 과학적 체제의 완성뿐이다. 그러한 진리의 탐구가 예·체능계의 궁극적인 목표인가? 예술이나 체육이 지성과 이성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학문의 전당에서 학문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량의 숙달을 지향하는 방법이 實技로써 다루어지기보다 예·체능계의 절개와 구조, 그리고 과학적 이론체계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말이 쉬워서 실기와 이론이라지만, 의학분야에서 임상과 기초가 분리되었듯이 실기와 이론이 분리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의학에서는 그 두 가지가 완성되고 융합됨으로써 仁術이 배풀어지는 것이라던 예·체능계에서는 실기와 이론이 완성·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기량의 완성’이 최고 가치이다. 아무리 이론이 탁월하다 해도 노래가 노래답지 않고 그림이 그림답지 않고 춤이 춤답지 않으면, 그리고 시험 때마다 저는 실수라면 예·체능계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기량이 선행되고 이론은 보조적이다. 이것이 예·체능계 학과의 대학내 位相 확립에서 문제로 떠오른다. 다른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이 예·체능계 학과의 學問的 成果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은 지향하는 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체능계가 ‘학문적’이라던 그것은 소기의 기량적 성과를 다하지 못했을 때이다.

아니다. 나의 성급한 그런 斷言은 예·체능계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체능계 학과는 두 방향을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철저한 실기 훈련으로 최고의 예술적 경지에 이르는 길이고, 체육 스포츠에서 기록을 새롭게 수립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학문적 이론의 科學化를 다지는 길이다. 대학에서는 후자의 길이 당연시된다. 그러나 대학에서 예·체능학과가 예술적 성과나 기록의 更新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서 자기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까? 그러한 최고 가치를 무시해 버리고 학문 일변도로 치우쳐 ‘아름다움’이 아니라 ‘참다움’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분야에 대한 方向設定이 잘못된 것이다.

나는 예·체능계 입시에 따른 말썽의 소지가 아름다움이냐 참이냐, 美냐 眞理냐 하는 ‘관념의 혼란’에서 오는 것으로 간주한다. 인문과학에 속할 예술학이나 자연과학에 속할 체육학이 학문영역에서 진리(참)를 표방하면서 아름다움(美)을 추구하는 자기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야말로 예·체능계는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며 그것은 더 나아가 入試에 있어서도 ‘땃’으로 작용하게 된다. 만약 예·체능계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知性의 집합체라면 입시 자체에서도 객관적 평점보다 주관적 평가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그 평가를 위해 스승의 大家다운 자유로운 眼目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그런 안목이 금전으로 흐려져 ‘예술가 정신’이 치열하지 못함에라! 치열한 예술가 정신은 타협하지 않는다. 그런 타협하지 않는 大學精神이 들어서 大學入試의 모든 부정적 요소들을 불살라 버려야 하는 것을! ▶